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3

▶ **44회 예고**
담마팔은 꾸날라를 데리고 강가강에서 수업한다. 그는 브라흐민들이 죄업을 씻고자 강물에 목욕하는 것을 비판한다. 꾸날라는 할머니인 다르마에게 목욕하지 말라고 한다. 다르마는 손자와 아들을 위해 아쇼까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다굽따, 대왕의 미래를 걱정하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서는 9월이었다. 우기 때 강가강이 범람하여 마을과 들판이 강물에 잠겨 농사꾼들이 빠딸리뿌뜨라 외성으로 피난 왔다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가강 강변들판의 수수밭과 목화밭은 폐허처럼 변해 처참했다. 작물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이재민들에게 건기를 날 수 있도록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다. 갓난아기 비가따쇼까 생일잔치가 다르마 왕비 별궁에서 열리는 날에는 닭 한 마리와 설탕, 소금까지 배급했다. 빈두사라왕이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나서면서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제관들이 기도를 잘해서 폭우가 멈추었소. 이재민들 모두 마을로 돌아가고 있지요?"

"예, 대왕님 은혜로 굶어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가따쇼까 생일이니 이재민들에게 특식을 내리도록 조치했소. 이재민들도 즐거운 날이 돼야 하오."

비가따쇼까 생일잔치는 다르마 왕비 별궁 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아침의 짙은 안개는 곧 걷힐 터였다. 궁녀들과 궁중연회장의 남자하인들이 정원에 놓인 십여 개의 식탁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락슈미띳사가 궁녀들을 불러 세심하게 지시했다. 별궁 정원은 장미꽃과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아침안개가 강가강 너머로 서서히 물러가고 있을 무렵에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가 별궁에서 나왔다.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를 안고 장미꽃이 놓인 식탁으로 갔다. 꾸날라는 아상디밋따의 손을 잡고 걸어왔다. 이윽고 빈두사라왕도 라다굽따와 함께 나타났다.

빈두사라왕이 참석하는 잔치로서는 소박했다. 우기 때 재난을 당한 백성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뜻에서 하객 인원을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다르마 왕비가 안고 있는 비가따쇼까를 보자마자 덥썩 건네받아 안았다. 비가따쇼까가 방긋 웃으며 빈두사라왕을 쳐다보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네가 아쇼까 동생이구나."

그때 꾸날라가 빈두사라왕에게 다가와 무릎인사를 했다. 담마팔 사문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있는 꾸날라의 행동은 더욱 의젓했다.

"오, 꾸날라구나. 몰라보게 컸구나."

꾸날라가 아상디밋따에게 가자마자 빈두사라왕은 다시 자신이 안고 있는 비가따쇼까에게 눈길을 돌렸다. 대신들이 비가따쇼까에게 다가와 덕담을 한 마디씩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갔다. 라다굽따도 말했다.

"왕자님이 대왕님을 닮았습니다."

"하하하."

빈두사라왕이 만족한 듯 호탕하게 웃었다. 칼라따까도 덕담을 했다.

"왕자님 덕분에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빈두사라왕은 담마팔 사문에게서도 덕담을 듣고 싶었다. 담마팔 사문은 맨 뒤쪽의 식탁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비가따쇼까가 무탈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하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다르마 왕비에게 담마팔 사문을 찾았다.

"왕비, 사문은 어디 있소?"

"저기 앉아 계십니다."

"가까이 와서 앉도록 하시오."

빈두사라왕 뒤에 서 있던 경비대장이 바로 담마팔 사문을 데리고 온 뒤 급히 의자를 하나 가져왔다. 담마팔 사문이 엉거주춤 빈두사라왕 맞은편에 앉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사문이여, 미안하오. 왕실의 스승은 가족 같으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오."

"대왕이시여, 사문은 낮은 자리가 편하옵니다."

아침 해가 별궁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침 햇살은 안개처럼 부드러운 것 같았지만 강렬했다. 빈두사라왕에게는 바늘이 눈을 찌르는 듯했다. 아침햇살이 쏟아지자 빈두사라왕이 이마를 찡그리며 손으로 햇살을 가렸다. 급히 다르마 왕비와 자리를 바꾸어 앉았지만 잠시 동안 비틀거렸다. 경비대장이 재빨리 움직였다. 정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궁중의원이 달려왔다. 궁중의원이 다르마 왕비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대왕님께서는 궁중에서만 계시다가 밖에 나오시어 잠시 현기증이 난 것뿐입니다."

"어서 궁중으로 모시고 가시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몇 달 전처럼 침소 집무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제관끼리는 권력투쟁을 하면서도 궁중의 제사를 함께 지내왔던 경험 때문에 통하는 데가 있었다. 빈두사라왕의 건강은 마우리아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라다굽따는 칼라따까 가족이 살고 있는 내성 안의 저택으로 말을 타고 갔다. 라다굽따는 몹시 조심했다. 관복을 벗고 상인 복장으로 변복하고 칼라따까의 저택에 도착했다. 말에서 내려서야 말먹이꾼이 들고 있는 보자기 속에서 관복을 꺼내 갈아입었다. 마침 칼라따까의 저택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났다. 말먹이꾼이 저택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칼라따까 대신님, 라다굽따 대신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손을 씻고 있던 칼라따까가 마당으로 내려와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오늘 아침에 다르마 왕비 별궁 정원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대왕님 문제로 오셨군요."

"그렇소."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칼라따까가 계단을 오르면서 하인에게 지시했다.

"아무도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라."



"예, 대신님."

2층 마루에는 원형탁자와 서너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넓은 2층 마루는 칼라따까가 문서를 검토하거나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원형탁자 위에는 포도주와 코코넛 음료수가 담긴 은주전자 두 개가 있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에게 포도주를, 자신은 코코넛 음료수를 은잔에 따랐다. 라다굽따는 선뜻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포도주를 한 잔 더 자작으로 따라 마셨다.

"대왕님 걱정이라면 나도 못지않소. 말해 보시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소. 사실은 몇 달 전 담마팔 사문이 왔을 때 대왕님 앞에서 불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소."

칼라따까가 입안에 머금고 있던 코코넛 음료수를 꼴깍 소리 나게 삼켰다. 급하게 마신 탓이었다.

"담마팔 사문의 말이 불길했다는 것이오?"

"대왕님께서 몹시 궁금해 하시니 사문은 사실대로 말한 것 같았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오?"

"대왕님께 10년 후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 했소. 그런데 대왕님께서는 사문을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소. 10년을 조심하면 마우리아왕국의 평화가 100년이 갈 것이라고 말이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의 속마음을 바로 눈치 채고 말했다.

"변고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병고가 닥친다는 말 같소."

"그렇소. 그러니 우리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떠하겠소?"

"대왕님의 후사를 걱정하자는 말에 동감이오."

"몇 년 후의 일이니 극비에 부쳐야 하오. 나는 대왕님을 이을 만한 재목으로 아쇼까 부왕을 생각하고 있소."

예상했던 대로 칼라따까가 동의했다.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할 인물로 아쇼까 부왕 말고는 누가 있겠소? 수시마 부왕을 후사로 삼는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오."

라다굽따는 비로소 자신의 구상을 말했다.

"아쇼까 부왕을 수년 내에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여서 대왕님 곁에 있도록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려면 아쇼까 부왕을 불러들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 다행이오."

"대왕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다르마 왕비님이지요. 그러니 다르마 왕비님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 봅시다."

"맞소. 다르마 왕비님은 담마팔 사문을 믿고 의지하니 거기에 길이 있을 것 같소."

"그럼, 내가 바로 담마팔 사문을 만나보겠소."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면 아쇼까 부왕을 옹립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칼라따까를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이 아니라 빈두사라왕에게 큰 변고가 왔을 때를 대비하자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반달이 보일 때쯤에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졌다.

라다굽따는 약속대로 담마팔 사문이 머물고 있는 절로 향했다. 뻡빨라나무가 있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 반달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뻡빨라나무 둥치에는 여전히 수행자들이 좌선하고 있었다. 말먹이꾼이 말을 멈추었다. 그가 먼저 뻡빨라나무 쪽으로 가서 담마팔 사문을 찾았다. 마침 담마팔 사문이 절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문이시여, 라다굽따 대신님이 오셨습니다."

"오, 그런가요? 이리 모셔오세요."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의 안내로 절 안으로 들어갔다. 라다굽따는 절 문 밖에 서서 사미승이 내미는 항아리 물로 손을 씻었다.

"대신이시여,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사문께 여쭐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입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에 관한 일이므로 중대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쇼까 부왕님은 본인이 원해서 아반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문께서는 대왕님께 10년 후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에 놀라고 있습니다. 대왕님의 안위는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소승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십 분의 왕자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대왕님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아쇼까 부왕님뿐입니다. 그러니 아쇼까 부왕님이 대왕님 곁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왕님 마음을 움직여 아쇼까 부왕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은 다르마 왕비님뿐입니다."

담마팔 사문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왕비님께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 부왕님을 당장에 불러들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를 보아 말씀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신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이 늦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과 아쇼까 부왕이 호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잘 풀어질 것이라고 갔는데 믿었던 대로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라다굽따는 뻡빨라나무 둥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자신의 품속에 있던 금전과 은전을 모두 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라다굽따가 말먹이꾼에게 말했다.

"반달이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구나. 조금 쉬었다 가자."

라다굽따가 반달을 한 동안 올려다보았다. 구름을 헤치고 나온 반달이 달빛을 뿌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말이 고개를 쳐들고 진저리를 쳤다. 안개는 강가강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계속〉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